

웹보조수업 활용 방안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웹클래스>라는 이름의 웹보조수업 운영 체제를 서비스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로 4년째이고, 중앙전산원에서 수업게시판을 서비스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로 2년째이다. <웹클래스>는 2001년 2학기 30개의 강좌로 시작하여 2004년 1학기에는 60여 개 강좌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산원에서 운영 중인 수업게시판은 2003년 1학기에 6개 강좌가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1학기에는 238개 강좌가 등록하였다. 온라인 활용 강좌는 최근 그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전체 강좌 수 대비 5%정도를 차지하기에 이르렀지만 아직까지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학내 시스템이 통합되고, 면대면 수업에 대한 온라인 클래스의 지원이 보편화될 것을 감안하면 온라인 활용 강좌의 수는 앞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면대면 수업에서 온라인 게시판 및 웹보조수업을 활용하는 몇 가지 방법을 다루었다.

1. 공지 및 수업 안내

강의 일정부터 과제 제출 기일, 프로젝트 관련, 팀 배정, 교수와 학생의 연락처 등과 같은 수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공지하는 데 웹이 활용될 수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통신비용은 물

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또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수업에 빠진 학생들의 경우에도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2. 학습 자료실을 이용한 풍부한 수업 자료 및 참고 자료 제공

웹을 활용하면 강의에 필요한 여러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문서 자료와 파워 포인트 자료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수업은 물론이고, 음악 감상, 그림 감상, 유적지 감상, 디자인 분석, 설계도, 일반 동영상 시청과 같은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도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수업 자료의 제작과 구입인데, 수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평소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웹을 활용해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학습자들도 개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3. 게시판을 이용한 주제별 토론 및 조별 토론

<웹클래스>를 비롯하여 웹보조수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의 대부분은 학생 또는 강사가 원하는 만큼

다양한 게시판을 개설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주제별 토론방을 개설할 수도 있고, 소그룹 활동에 필요한 조별 게시판을 제공할 수도 있다. 강좌에서 다룰 수업 내용, 학습활동, 과제 등을 고려하여 학습 집단을 적절한 소집단으로 조직하고 조별 또는 주제별 활동으로 나누어 학습활동을 전개시킬 수 있다. 이 방법은 학부와 대학원에서 공히 유용하다.

4. 채팅방을 이용한 동시 토론 및 협동 학습

웹의 또 다른 장점은 동시에 다자간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호작용의 필요에 따라 채팅방을 이용한 동시적 토론과 게시판을 이용한 비동시적 토론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채팅의 경우, 학생들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 및 협동 학습에서 진행될 수 있고, 게시판은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심사숙고하는 것이 요구되는 토론에 사용하면 유용하다. 필요한 경우에는 채팅방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저장하였다가 게시판에서 공유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웹의 기능을 활용하면 학습자의 조별 토론이나 조별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교수자가 수시로 점검해 전체 수업의 진행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5. 과제제출 및 평가수단

교수와 학생 입장에서 볼 때 웹을 활용한 과제 제출 및 평가방법은 여러 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

다. 지금도 리포트는 인쇄물 형태로 수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많은 학생들의 과제를 모니터 상에서 읽고 평가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쇄물과 웹상의 제출(이메일 또는 과제제출실)을 병행하면 제출된 자료가 없어지는 등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소집단과제의 경우에는 과제물의 결과를 공개하고, 과제물에 대한 공동평가(교수 평가와 동료 평가를 적절히 혼합할 수 있음)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우수과제 선정에 활용하는 등의 활동과 연계할 경우 학습자의 학습 촉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한편, 웹을 활용해 객관식 시험문제를 제공하는 경우는 채점과 성적기록이 자동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다. 이때 공정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험 응시 시점 및 시간을 통제하는 등의 방법이 요구된다. 그리고 해마다 문제 풀(pool)을 수정하고 보충하는 것도 필요하다.

6. 해당분야 전문가, 관련 사이트, 산업체와의 연계 수단

웹의 또 다른 장점은 해당분야 전문가, 관련 사이트 등을 무제한적으로 검색하고 이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수업에서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 사이트나 메일 등을 소개하고 이를 수업 과제와 연계시킬 수도 있고, 학습자의 개인적 관심에 따라 이들과 접촉하도록 촉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교수는 수업과 관련 있는 산업체의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전문가 그룹 티칭을 시도할 수 있고 산학 연계의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다.

7. 개별학습을 위한 코스웨어 제공

최근 많은 교수들이 의욕적으로 자율학습형 코스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자율학습형 코스웨어를 이용하면 특정 주차의 수업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코스웨어는 주로 정보전달의 목적을 수행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한 질문 및 상호작용이 온라인상에서 전개된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교수의 출장이나 비상시에 휴강을 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자율학습형 코스웨어에는 각종 멀티미디어를 html 언어로 연결한 웹 문서형, 저작도구를 사용한 멀티미디어형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자율학습형 코스웨어는 과거에는 상당한 자금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최근에는 많은 저작도구들이 시중에 나와 있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비교적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

이상에서 <웹클래스>와 같은 온라인 강의실을 사용할 경우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웹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제시된 웹의 기능은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자의 의도와 활용 목적에 따라 취사선택이 가능하다. 수업에서 웹을 가장 단순하게 활용하는 방식은 수업 참여자 간의 정보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게시판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웹 활용은 수업 진행 방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준비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업에서 웹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원할 경우에는 강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더 치밀한 준비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강의 계획 단계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온/오프라인의 모든 활동이 수업 목적 달성을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수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수업 자료를 미리 수집하거나 디지털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준비가 있을 경우 온라인 강의실은 수업에 필요한 자료와 활동을 연결시켜 주는 거점이 되고 교육 목적 달성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

교육매체지원부 adela3@dreamwiz.com